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6. 5. 16 (월)	
		작성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문의	외교심의관 김창식 사무관 하지영 (Tel. 044-200-2035)
<p>* 엠바고 : 즉시 사용</p>			

알-왈리드 사우디 킹덤홀딩社 회장 접견

□ 황교안 국무총리는 5.16(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적 투자 기업인인 사우디 알-왈리드(Al-Waleed bin Talal bin Abdulaziz Al Saud) 킹덤홀딩사(Kingdom Holding Company, KHC) 회장을 접견하고, 對韓 투자 방안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알-왈리드 회장 : 총 자산 280억불 규모로 아랍 1위 부호(2016년 포브스紙)

※ 킹덤홀딩회사 : 알-왈리드 왕자가 1980년 창립한 투자회사로, 중동지역 및 씨티 그룹, 펩시콜라 등 다국적 기업에 주로 투자

□ 황 총리는 알-왈리드 회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 회장이 우리 국내 여러 기관들과 투자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많은 구체적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 알-왈리드 회장은 자신의 사업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관계로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공공·민간 부문과 호텔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 문제를 폭넓게 협의·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다고 하였다.

- 황 총리는 최근 사우디가 국가 및 경제 발전을 위해 「Vision 2030」 구상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구상으로서 우리도 사우디의 오랜 협력 동반자로서 동 구상 추진에 적극 참여·협력코자 하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 더욱 공고히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알-왈리드 회장은 「Vision 2030」 구상은 사우디의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야심찬 국가 발전 계획으로서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 발전의 지식·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바, 사우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범(role model)이 되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보며, 본인으로서도 적극 성원하겠다고 하였다.

※ Vision 2030: 2030년까지 석유 의존도의 획기적 축소 및 신산업육성 투자를 통한 경제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우디 국가발전 청사진(4.25 발표)